

새 것이 되게 한 눈물과 고난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33:1-8, 고린도후서 5:17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가정, 가문, 지역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소소서. 성령충만하여 세계를 복음화하는 응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소서. 십자가의 달리셔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며 또,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감람산의 영적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를 위하여 모여서 세계복음화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소서. 하나님 계절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소서. 유월절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 하시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수장절, 마라나타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소소서. 오늘도 증거 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며 나를 치유하는 언약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문을 열어주셨다. 천국에 가면 피, 땀, 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 오늘 본당이 시원하지 않은가. 더운 날씨에 에어컨 때문에 시원하다. 누군가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수력, 화력발전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가 자동차 타면서 편하게 다니지 않은가. 그 더운 날씨에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더위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헌신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함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것도 하나님인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시고, 그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대로가 열린 줄 믿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평화로운 나라, 좋은 나라가 되었다. 불과 10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그 사이에는 전쟁도 있었다. 오늘 우리의 자유는 많은 사람들의 피로 얻어진 자유이다. 지난번에 언뜻 티비에서 본 것이 있다. 인천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한다. 서해안 쪽으로 상륙하기 위해서 원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고 한다. UN군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한국 군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이 가는 목적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 살 수 없다. ‘우리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하고 무전을 해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인천상륙작전도 성공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은혜, 희생, 피와 땀,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불평, 불만 할 것 없다. 경제의 응답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잘 먹고 잘 살더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나는 피를 생각하면서 생명과 같다고 생각되었다. ‘피 같은 돈’이라고 하지 않은가. 여러분이 훔친 돈이 아니라면, 교회 와서 드리는 헌금은 시간을 드려서 드린 것이다. 피, 시간이 생명이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서 얻은 예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 같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헌신이다. 그냥 돈이 아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 땀,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237개국이라는 비전을 가졌다. 우리는 무능한데 하나가 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부족하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면, 램뎀트가 일어나면 가능해진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러한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 예수가 돌아갈 때 다 실베리인줄 알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10년, 100년, 200년 계속해서 쫓겨 다녔다. 그런데 실패자가 아니었고 영원히 남는 성공자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린 나이에 부르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하고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라.’ 순종해서 갔다. 그런데 일 년, 이 년, 몇 년이 지나도 말을 듣지 않고 힘들기만 하다. 결국에는 애굽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따라야지 너희들이 생명이라도 보전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도 보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에 붙자는 친바벨론파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만든 것이다. 평생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고 죽었다. 실패자이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갈등하지 않고 번민, 고민하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끝까지 그 길을 걸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확실하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알았다. ‘너희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어른들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후대들은 알아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예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2장부터 29장까지는 멸망을 선포하라고 설명하신다. ‘너희들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 속국 되고 죽게 된다.’ 그런데 30장, 31장, 33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미안하신가보다. ‘너희들이 말

을 안 들어서 포로 되고 속국 되어 끌려가겠지만 너희들은 망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성전을 회복하라. 너희가 할 것은 부르짖는 것이다. 기도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었으며, 15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각인, 뿌리 내렸던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그들이 1차 포로 때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끌려가지 않은가. 우리는 절대로 우상숭배 하지 말자.’ 해서 마음에 뜻을 정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환관장이 명령했는데도 제 사음식을 먹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 나라를 살리게 되었다. 2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이었다. 그날 강가에서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갈지 보여주셨다. 예레미야는 실패하지 않았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들은 후대를 살렸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다 넘어졌다. 그런데 그루터기의 기도가 나중에 램뎀트를 살리는, 그들이 남길 자의 축복을 얻은 것이다. 그들이 램뎀트이다. 예레미야는 구약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시편이 150편이나 되어서 길다고 하지만, 단어를 보면 시편은 19,000개, 예레미야는 20,000개 이상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소중한데, 길어서 소중한 것 같아서 덜 소중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장 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왜 길게 주셨는가. 너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다 잔소리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랑이다. ‘돌아오라. 결국에는 나중에 회복시켜주겠다.’ 어머니들은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하지 않은가.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용서해줄게. 여러분에게 꾸지람하지만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 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맞은 것만 생각한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랬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는다고 한다. 여러분, 매도 심하게 맞으면 안 아프고 반항심이 생긴다. 여러분은 매 안 맞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다. 조카가 저번에 와서 이야기했다. 매로 때리려고 했더니 ‘엄마. 잠깐만.’ 한다.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잠깐만 매 가지고 놀다가 줄게.’ 했다고 한다. 안 맞으려면 머리라도 좋아야 한다.(웃음)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하면 봐주신다. 고집 피우고 불순종, 불신앙하면 안 된다. 마음이 착하든지,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믿음도 없고, 못 됐고, 멍청하다(웃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한 가지라도 확실하기를 바란다. 모든 문이 열린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응답 주실 줄을 믿기를 바란다. 진실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드린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면 성경전체 역사의 절반은 이해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 13년 때부터 예언을 했다고 나온다. 요시아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가 된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 왕이다.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밑에 므낫세 왕은 너무 약한 왕이었다. 아몬은 있으나마나 한 왕이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민족을 친 이유가 므낫세의 잘못이라고 하셨다. 므낫세는 이사가 선지자를 둘로 쪼개서 죽였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들의 믿음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가장 선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저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하지 않아야지.’하면 된다. 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의 좋은 DNA만 물려받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나쁜 것만 골라 받은 사람이 있다. 지금 이 시간 나쁜 DNA는 복음으로 끊어버리고 복음으로 좋은 것만 남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찾아보다. 근원을 회개해야 한다. 알면 해결이 된다. 내가 나 때문에 잘못을 했고, 내가 왜 이리지만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방을 해야 한다. 자살한 집안을 조사해보니까 여러 명이 자살한다. 증독에 빠진 집안은 여러 명이 증독에 빠졌다. 가정이 깨진 집안은 다 가정이 깨졌다. 성질이 이상한 사람은 계속 성격이 이상하다. 부정적인 사람은 다 부정적인 마음만 있다. 다 끊어버리고 좋은 것만 남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20년 동안 계속 예언을 한다. 그 당시의 왕이 여호야김이었다.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따르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예언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았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뿔히고 쇄사슬에 묶여 끌려가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처럼 바로 때리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교훈을 받을 때는 작은 것이라도 크게 깨달아야 한다. 어제도 어려운 환경에 있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바로 보러 온다는 것이었다. 완전히 세상적으로 바뀌었다. 가끔 놀러오라고 하니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한다. “교회 안 다니래요. 지옥을 가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믿을래요.”한다. 그래서 “아니야, 너는 지금 죽어도 돼. 그 때까지 안 다녀도 돼. 너는 하나님 자녀이니까 천국 가.”하니 자주 온다고 하면서 돌아갔다. 그 조상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어 이 후대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험하게 살아갈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작은 것이 어마어마한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 1분, 1초라도 불신앙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저주, 재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은 어머어마한데, 그 재앙과 저주를 후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가볍게 행동하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떤 허물과 실수와 잘못도 다 잊어주시고 씻어주시는 분이, 잘못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바란다. 그것이 복음이다.

1.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고생을 하면서 생명을 걸고 메시지를 전했던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20년, 30년이 넘도록 애굽에 끌려가서도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씀을 전했다.

(1)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실패했다. 예배에 실패하면 망한다. 계속 실패해 보라. 어머어마한 위치에 가있을 것이다. 반대로, 계속 예배에 성공해 보라.

오늘 강대상에 떨어진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작은 것 하나를 붙잡는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직장에 가서도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어딜 가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시지 바란다. 예배시간에 즐기고, 다른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가정, 모든 만남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저주 받기 말라고 해도 저주를 받게 되고, 안 되지 말라고 해도 안 되게 되어있다. "강단메시지에서 작은 것 한 가지를 그림 오늘날, 이번 주만 섬기나요?" 아니다. 1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메시지가 있다. 어느 순간에는 몇 년 전에 들었던 메시지가 오늘 나를 지켜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메시지를 집중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귀를 열어 들어야 한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제 어떤 가게를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이 아침 7시에 방탄소년단 싸인회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은 아침 7시에 훈련받으라고 하면 안 할 것 아닌가. 어제 날씨가 무척 더웠다. 그런데 그 곳에서 방탄소년단을 기다리며, 답답하고 불평하는 이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니까. (웃음) 청소년 시절에 잘생긴 아이들 그룹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우상이다. 망하는 것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먼저, 주님을, 이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한다. 그런데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들은 BTS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오전에 핵심 갔다오고 점심에 전도캠프 갔다오고 오후에 사명자 모임하고, 완전히 다르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내가 BTS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가수들이 한국어를 하나 세계에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 그들은 그들의 문을 연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남자친구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은 모두 우상이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다. 다 주신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예레미야 2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니까 직장이 나에게 돈 줬다. 착각이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지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다 주신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란다. 다른 것이 준 것이 아니다. 근본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단 메시지에 불순종한 것이다.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응답, 축복 받을 수 없다. 마귀가 보고 웃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자신이 깨져야 한다. 말씀이 은혜롭지 않아도 목사님의 말씀이 나와 전혀 안 맞을수록 내가 깨져야 한다.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아멘'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전혀 안 맞는 말에도 '아멘'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된다. 성령인도 받으라. 나를 깨는 것이다. 주인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안 맞을수록 '아멘' 해보라. 다른 더 넓은 세계가 보인다. 불순종하고, '싫어', '안해', '나랑 안맞아' 하면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된다. 절대 성장 못한다. 아멘으로 항상 기뻐하고 순종하고 감사해라. 순종은 'Nomen'하면 안 된다. 성령인도 받아라. 순종하고 봐라. 일본선교캠프, 제주캠프를 갔을 때도 계속 기도한다. 이번 일본선교캠프도 '목회자들끼리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한 것은 비행기 정해서 티켓을 끊고, 호텔 예약한 것이 다이다. 나머지 계획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나도 모른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께 맡기니 하나님은 완벽하게 5명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 현황을 보게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기도하고 주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역시 하나님은 완벽하셔.' 그러나 무계획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다 계획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면 된다.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24시간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무계획한 것인가. 아니다. 성령인도이다. 성령인도 받으려면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머리 쓰고, 더 잘 알아보고 대비해야 한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기를 축원한다. 2장 5절에 '나를 멀리 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2장 19절에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으면 기도하고 인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 틀에 갇혀서 살면 안 되지 않은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역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런 삶이 다 되기를 바란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을 해야 한다.

(3)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2장 36절이다. '내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잇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요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인간적인 경험을 따라 잇수르를 의지했다. 그 결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4)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장 3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잘못된 것을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해야지 발전이 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해서는 주역이 될 수 없다.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나 때문이다.' 고백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라 했는데, 그 의인 한 명이 없어 망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의인 열 명을 찾으면 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 했는데 없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의인이었다.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지 않았는가.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기도와, 피와 땀과 헌신 때문에 결국은 다시 다 회복된 줄 믿길 바란다. 그 한 명의 의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미국, 중국이 무역에 갈등이 있어서 한국의 무역수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셔서 인 줄 아시려. 그리고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셔라. (웃음) 잘되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못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놀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지 응답의 문이 보인다.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잘했다고 하면 안 보인다.

(5)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과 경험과 판단을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따르고 섬기면 멸망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바벨론과 대적하다가 성전까지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성령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 집중기도해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면 알려주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다.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도 집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밝혀 보여주신다. '이렇게 하거라.' 보여주신다. 안 보이면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나중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감동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인 것이다. 아무도 여러분의 응답을 빼앗을 자가 없다.

2.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 큰 축복, 큰 사명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이다. 다락방에서 가장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인가. 류목사님이다. 당연한 것이다. 성공했다는 뜻이다. 전 국민에게 욕 먹을 정도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1) 어린 나이에도 너무나도 큰 사명을 부여 받았다. 1장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그러나 1장 7절에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능한데 자꾸 어려운 일을 시킨다.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다.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하겠습니까. 못하는데도 순종하고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나무를 채워두기도 했다. 20장 2절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전도하다가 이런 적이 있나? 37장 16절에 '뚜껑 씌운 우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38장 6절에 보면 진창 속에 빠지기도 했다.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멍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딱 하나도 주지 않았다. 나중에는 37장 18절에 보면 옥에 가두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떡 하나밖에 안 주었다. 진창 속에 있을 때는 떡 하나도 안 주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어렸을 때 받아 이 길을 가는데 왜 이 어려움, 가난, 핍박, 무시, 고통을 당하느냐?' 그러나 예레미야가 같듯하고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 다 살릴 수 있구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는다. 여러분이 피, 땀, 눈물을 흘려야지 후대가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임을 믿기를 바란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가 가정, 가문, 복음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

(3) 거짓 선지자들이 도리어 예레미야를 죄인 취급하고 누명을 씌웠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고 생명 건 헌신을 하였다.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과 고난과 희생은 결국 남유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응답의 여정이 되었다.

우리의 CVIDP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언약이다. 언약과 그리스도의 피이다. 피는 생명을 거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생명 건 헌신을 통하여 유다민족이 다시 살아났다. 우리도 이러한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한다.
2. 비전이다. 요세 집중훈련을 하는데 생명 건 헌신을 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계속 나오기 힘들다. 여러분의 그 피, 땀, 눈물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란다. 예레미야의 비전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과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1장까지 주변의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
4. 기도이다. 예레미야는 유대민족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미래가 생생하게 보일 정도로 기도했다. 이 때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이상과 이미지를 보여주셨다.
5. 실천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평생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결국 예레미야의 고난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었고, 예레미야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작품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들도 어떠한 핍박과 반대, 고난, 어려움을 겪을 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전도를 위하여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린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사 예레미야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도 갈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다른시스템, 단독시스템, 제3의시스템, 절대 현장에서 돌아가서 절대시스템을 만드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